

마가복음 8-9
Tape #C2521
By Chuck Smith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되 .” (8: 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고도 오천 명을 배부르게 먹으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행하신 또 한 번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 일을 금식하며 주리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은 이때 이적 일으키는 능력을 그분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는 기꺼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 즉 그분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 그 당시 ,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많았지만 ,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대 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들의 육체적 결핍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려가 깊으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곤궁함에 무감각합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시흠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 (8: 2-3)

예수님은 자신과 3 일 동안이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 일반적으로 볼 때 , 금식 3 일째가 우리 몸이 견디기에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 하지만 , 3 일이나 4 일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며 , 극심한 배고픔을 잊기 시작합니다 . 그러므로 장기 금식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3 일째가 가장 힘든 때에 속합니다 . 예수님은 , 3 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 그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 으리이까 ? 예수께서...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 배 불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 (8 : 4-9)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셔서 많은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 처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오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에는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였습니다 . 이때 사용된 ‘광주리’라는 용어는 당시 이방사람들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 여기에서 사용 된 ‘광주리’라는 용어가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 이 사실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든지 간 에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오천 명을 먹이신 장소가 벳새다 근처였는데 , 이는 유대의 도시 로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더 들어간 호수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 남은 조각을 모으기 위하여

이방인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들은 이 점에서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당연히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 으로 전세계의 이방인들을 이적적으로 먹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예수께서 저희를 흠여 보내시고 ,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들버뉴다 지방으 로 가시니라 .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구하거늘 .” (8: 10-11)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 많은 경우 ,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자들은 자기가 볼 만한 묘기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약속하곤 하였습니다 . 그들 중 어떤 지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 요단강을 들로 가르는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또 어떤 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예를 들면 , 전세계에 동시에 위성 텔레비전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따위 말입니다 . 그러나 스스로 메시아인 체했던 자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거창한 묘기들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도 유대인들은 단념하지 않고 메시아의 손으로 일으켜지는 초자연적인 이적 같은 현상들을 여전히 추구했습니다 .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도 역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시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 고 .” (8: 12)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 적이 없느니라”(마 12 : 39-4) 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그저 군중들의 호기심을 채워 주기 위한 이적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 워 주는사역을감당하기 위해서 이적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나 ,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 한 번은 헤롯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 마치 그가 마법사들에게 신기한 묘기를 부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헤롯을 위하여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요구받으셨을 때에도 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도마는 ,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고 그에게 전해주었을 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에 넣으며 ,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 20: 25) 고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 즉 도마가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다를 때 예수님은 그 곳에 계셔서 그 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 비록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마 18:20) 고 하신 말씀대로 ,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으로 직접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으며 , 도마는 이에 감히 손을 대 어 보지도 못하고 “나의 주시며 , 나의 하나님이니이다”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 우리 주위에는 항상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것이 건강한 믿음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종류의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적을 추구하는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믿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 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믿고 따라가는 형태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이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 | 자들이 떡 기저오기를 잊었 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 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 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8: 13-21)

이는 “너희에게 떡 한 덩이가 있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 (leaven or yeast) 은 항상 ‘악’ 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로써, 유대인들은 먼저 만들었던 떡반죽에서부터 항상 조금씩 떼어 놓아 누룩이 다 퍼지게 한 후, 그것을 다시 새로 만드는 떡반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발효하기 시작한 누룩이 떡반죽 속으로 스며들어가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즉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이 새로 만드는 떡 반죽에 스며들어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현상 때문에,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악’의 적절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용납된 최소한의 ‘악’이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종류의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 스며들어가 그들을 오염시킨 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잊고 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뱃새대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이가는 것을 보나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 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8: 22-26)

예수님은 이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면서 행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처음 안수하 셧을 때 이 사람의 시력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은 흐리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안수 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은 아주 흥미롭습 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중 유일하게 기록된 ‘점진적 치유’ (gradual healing)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안수하셧을 때에 이 사람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 다. 이 사람이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을 때는 예수께서 두번째 로 안수하고 니셧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기록된 것으로는 유일한 점진적 치유 사건입니다. 병의 치유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 받지 못하는가?’ 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 다. 아주 강하게 믿습니 다. 저는 모든 종 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 다. 저는 점진적인 치유도 있다고 믿습니 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의 과정도 기록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맹장이나 기타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꿰맬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그 환 자의 살을 다시 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사는 수술 부위를 꿰맬 뿐입니다. 수술 후에 그 곳에서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어 세포와 세포가 서로 결합하고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이 신비한 치유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거룩한치유의 과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거 룩한치유의 과정입니다.

“신적인 치유 (divine healing)”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며, 단지 일종의 정신치료법 (psychosomatic)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비평가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정신적인 병에 앓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치유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가 그 정신적 장애에서 놓임받고 그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면, 도대체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나는 도무지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그들 자신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어떤 비전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로 순전히 정신병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치유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비전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보았고, 점진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이적으로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치유받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는 이따금씩 매우 자연스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저희들은 단지 기본생활을 유지해 나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가족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자주 느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그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돈봉투를 가진 사람을 우리집으로 보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내 주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돈봉투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편으로 돈을 보내 주시지는 않았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식료품이 담긴 광주리를 든 사람을 저희 집에 보내 주시지는 않았습 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때 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며 “오늘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쾌히 승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셔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 저녁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시체가 있는데 와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시체안치장에서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대답하고 가서 시체 한 구 처리하는 데 5 달러씩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오늘 저녁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분은 자주 자연적인 과정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 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미꽃 앞에서 “오, 하나님”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 자연이 곧 하나님이구나” 또는 “어머니적인 자연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자연을 경배하는 것은 매우 바르지 못합니다. 분별력있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보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롬 1:25) 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들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혀 치유될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분은 손을 대고 고쳐 주기를 기대하는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전에 다른 소경을 고쳐 주셨을 때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으로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발라 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그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형식대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하지만 ,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집어 넣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 다시 말해 ,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 법으로만 역사하신다”거나 ,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 로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에만 옹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불행하게도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 고 있는지 아십니까 ? 시편 기자도 저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 즉각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시고 점진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셨으며 , 어떤 때는 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손을 대지 않고 말씀 한 마 디로만 고치셨으며 , 어떤 때는 병자의 집에 방문하여 고쳐 주셨고 또 어떤 때는 그저 “집으로 가라”는 한 말씀으로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어떤 틀에 얽매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 다 .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호버 | 라 하 고 , 더러는 엘리야 ,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 를 누구라 하느냐 ? 베드로가 대답 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 (8 : 27-29)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끝에 위치한 뱃세다를 출발하여 갈릴리 윗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었었습니다 .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 강의 주 수원지인 헤르몬 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 오늘날에는 ‘배니어스 (Banyas)’ 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 그 곳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 을 때 요단강 물이 샘솟아 나왔던 동굴 바로 옆에 사원을 지었는데 , 그 후 지진 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요단강 물이 이 동굴의 30 미터 정도 아래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 ‘팬’ (Pan) 을 위하여 그 곳에 사원 을 지었고 , 그 곳을 ‘패니어스’ (Paneas) 라고 명명했습니다 . 그러나 ‘패니어스’ 의 피울 발음이 까다로워 점차 ‘배니어스’ (Banyas) 로부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 날에는 그 이름이 ‘배니어스’로 굳어졌다 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그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하고 하느냐 ? ”고 제자들에게 물으셨 습니다 .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왔음을 말해 주는 것 입니다 .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의심했음에 틀림없지만 , 예수 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원스럽게 자신이 누구이며 , 지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 씀때 적이 없었습니다 .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 고 , 더러는 엘리야 ,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예수님은 또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자 ,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 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 입니다 .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이어입니다 .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은 자’ (the Anointed One) 라는 의미이지만 , 헬라이어로도 ‘그리스도’는 ‘기름부은 자’입니다 .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 ‘메시아’ 라 부르는 것은 ,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자로서 공식적인 왕이 되신 분임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입니다 .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시니이다”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 (8 : 30)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아직 드러내 지 않으셨습니다 .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되어 죽임 을 당하고 시흘만에 실이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예수께서 돌 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시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 (8 : 31-33)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후에야 자신이 십자가 에서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왜냐하면 , 제지들은 메시아에 대해 여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 메시아가 하나님 의 왕국을 건설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 로마치하 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 하여 이 땅에 세워져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바로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으므로 ,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하자 ,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되어 죽임 을 당하여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 예수님은 이것을 제 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행하 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 다시 말해 즉각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일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되었으며 ,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 질고를 아는 자라 .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 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 : 3) 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뿐만 아 니라 다윗도 시편 22 편에서 메시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 이것도 성 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 “보아라 , 일은 너희들이 생각 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 나는 버림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 메시아가 끊 쳐질 것이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도 , 왕국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이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 하셨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 그들의 메시아 개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말씀이었기 때문에 , 제자들은 “내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

어안이 병병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 “사단아 , 내 뒤로 물러가라 .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 각하는도다 .”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을 때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사 랑한 한 인간으로서 그의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 그는 예수님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는 인간적 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했다면 , 그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며 ,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 (8: 34)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 무엇보다도 먼저 ,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거리가 멀니까 ? 오늘날 이 세상은 “너 는 너 자신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우리가 우리 자 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게만 된다면 ,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 다 .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 곧 그리스도 예수 의 마음이니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 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 곧 십자 가에 죽으심이라” (빌 2 : 5-8) 고 썼습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늘 보좌를 부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느냐?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 하신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8 : 35-36)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이이라도 하는 자, 그것이 의미이고 목적인 자, 그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야망이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을 며칠이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누군가에게서 지신이 육십번째 생일을 맞던 날이 바로 아담 이래로부터 1퍼센트의 시간을 산 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차지하면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100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98 세가 되어도 이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영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히 11 : 25) 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죄가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누리는 낙은 분명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히 11 : 26)

‘사람이 무엇을주고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8 : 37)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맞바꾸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인디언들이 미대륙에 이주한 초기의 장사꾼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황금과 은으로 만든 조각들과 백인들의 무가치한 구슬들과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값나가는 황금 공예품들을 그저 단순한 구슬들과 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혼을 팔아 어떤 것들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불하는 장사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거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값싼 구슬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주고 영혼을 살까?’ 하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8 : 38)

예수님은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 일만에 다시 살아 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메시아는 바라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지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언젠가 메시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9 : 1)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 다 죽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잘 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저의 해석으로 인해 예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이 우스꽝스럽거나 어리석은 말처럼 틀린다면 제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9 : 2-4)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벌립보에 있는 헤르몬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변하였고, 그분의 옷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된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 절에서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세 제자들은 예수께 이끌리어 높은 산에 올라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할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적 제한시대 (time zone) 를 벗어나 영원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1 절에서 선언하신 그대로, 실제로 영광과 권능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이다 하니.” (9: 5-6)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을 거룩한 땅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사원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다가도 당신이 입을 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어리석은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9: 7)

히브리서 1 장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대개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과 선지자에 반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9: 8-13)

왜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인자에 대하여는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서의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완수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된 것까지도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서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9: 14-16)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남아 있던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아마도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양이 곤란에 처해 있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 주는 목자처럼, 늑대에게 잡힌 양을 구해 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갈보리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마다 모이는 성경공부반에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혹시 우리 양들을 해치러 온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월요일 밤 성경공부 모임에 성도들은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저들을 내보내자”고 말한 후 함께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리 와 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막 거듭난 자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듭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단체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들을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당신들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오, 형제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형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며 계속해서 탄성을 피우기에, 그들에게 저는 정색을 하며 “당신들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본능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위트니스 리 단체에서 오셨지요?”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또 “할렐루야.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성경공부 인도자가 그들에게 “나가시오”라고 말하자 여전히 “할렐루야. 형제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님들은 지방교회 교인 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도 지방교회가 되실수 있습니다”라며 영똥한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일한 참교회라거나,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울안에서 하나되어 예수님을 대표하는 유일한 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는 장면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 니이다...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여 | 수를 보고 곧 그아이 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활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 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 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9 : 17-24)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아들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귀신으로 인해 거꾸러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 며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때로 발작이 심할 때면 불 속이나 물 속에 빠져 허우 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그의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 아이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넘어져 구르며 입에 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병어리되고 귀먹은 귀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두번째 명령은 이주 흥미롭습 니 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 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 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눅 11 : 24-26)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귀 선에게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귀신론’ (demonology) 에 대해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귀신들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귀신들렸다고 상상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귀신의 세력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귀신의 역\까 이 곳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형태 (cult) 로 급속한 성장을 보임에 따라 귀신들리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 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9 : 26-29)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영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의 주권과 능력이 차 별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어떤 귀신은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하여 사람에게서 쫓아내기가 더 힘듭니다 . 본문에 나타났듯이 그때 제자들이 쫓아낼수 없었던 귀신은 아마도 더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 예수께서 그 귀신 을 쫓아내신 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 (this kind) 가 나갈 수 없 느니라”고 하신 것도 악령의 등급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귀신론을 다룰 때 귀신의 다양한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 고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연고더라--.” (9 : 30-32)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 주목해 보십시오 .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메시아의 개념 은 사실 다른 것이었습니다 .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 왜냐하면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 저희 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 (9: 33-34)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 베드로는 아마도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거야!”라고 주장했는지도 모릅니다 .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벌인 그 유치한 논쟁에 대해 고백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 우리도 마찬가지 지입니다 .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방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 하시면 우리도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물으시면 당 황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허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사실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더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께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 (9: 35)

예수께서는 앉은 상태에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전형적인 자세였습니다 .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첫째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이따금씩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 주셔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 때때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정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 혹은 “네가 그때 실패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 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정죄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 실패를 피할 수 있고 ,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조목조 목 지적해 주십니다 .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 “하나님이 그아들을세상에 보내신 것은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요 .” (요 3 : 17-18)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 하지만 ,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하지 않으십니다 . 우리가 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 어떻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큰 자냐 ? ” 하는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 “보아라 . 너희가 최고가 되고 싶으냐 ? 이 방법을 써 보아라 .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 : 26-27) 고 쓰여져 있습니다 . 또한 예수님은 앞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 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막 8 : 35) 고 말씀하셨습니다 .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네가 최고가 되고 싶 으냐 ? 이 길이 최고로 가는 길이다 . 그런데 이 길은 네 생각과는 다른 길이다 . 야 망과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여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 또한 같이 달리는 사람들을 뒤로 떨어뜨리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 최고가 되는 길은 종의 위 치에 서는 것이다 .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교회 목사 의 위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 ‘목사’ (a minister) 는 실질적으로 ‘종’ (a servant) 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 목사는 성도들의 필요에 봉사하고 ,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 을 받은 것입니다 . 이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 “으뜸이 되려느냐 ? 그 러면 종이 되어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

“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 누 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누 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잃지 않으리라 .” (9 : 36-41)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은 곧 예수님께 한 행동입니다 . 사실 ,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인격적인 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자랄 뿐 그 누구 도 어린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 다 .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 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

여기에서 요한은 ‘종파주의’ (sectarianism) 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예수님은 “동역”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 즉 “그들을 그냥 두어라” 는 의미입니다 .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X 까 누구인지 분 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우리의 대적은 이 곳에 있는 다른 교 회들이 아닙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 다 . 하지만 현실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데 너무 바빠서 사단의 세력을 효과 적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 다 .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뱃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 (9: 42)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때 요한이 종파주의 문제를 끄집어 내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간략히 일축시켰습니다 . 그리고 다시 어린 아이 문제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뱃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온유하 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 “나를 믿는 어린 아이를 실 족케 하는 자가 있다면 , 내가 그 목에 뱃들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 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 여기에서 말하는 연자뱃들은 지금도 가벼나움에 있는데 , 크크기가강대상만하고 , 가운데 둥근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둥글 고 납적한 돌입니다 . 이 돌을 목에 매달고 갈릴리 호수에 던져진다면

대단히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 이것을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 어린 아이들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시키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아시겠습니까 ? 어떤 사람은 아플 때마다 손자들을 불러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 “애들아 , 너희가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다오 .”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도대체 어린 아이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뒤틀려져 있었습니까 ? 그것이 얼마나 뒤틀려진 종류의 마음이든 상관없이 , 예수 님은 어린 아이의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밧들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 (9: 43-44)

예수님은 48 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 오늘날 많은 현대자유주의 학자들은 “지옥이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 아니다”라든가 ,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 현대자유주의 목사들과 유니테리안들과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 모두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 현대자유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 “나는 이 곳에 있을 수 없어 . 이곳은 존재하지 않아 .” 유니테리안들은 , “이것은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야”라고 말할 것이고 ,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 없다 .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여기에 예수 께서 지옥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 예수께서는 허버트 W. 암스트롱이나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지옥에 대해 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예수 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 지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서는 안 될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 (9: 45)

여기에서 말하는 “지옥”은 헬라어에서 흔히 “지옥”이라고 쓰이는 단어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 헬라어로 흔히 쓰이는 “지옥”은 “하데스” (Hades) 입니다 . 이곳은 불의한 자가 죽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땅 속 중심부를 말합니다 . 그러나 본문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데 쓰인 헬라어는 “게헨나” (Gehenna) 입니다 . 이곳은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닙니다 .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두는 곳이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 그러므로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 영원히 그들에게 제공될 거주지입니다 .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 (9 : 47-49)

소금이 정화 (伊化) 를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그들은 불로 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 (9: 50)

예수께서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 우리는 감히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 “하나님 ,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 이제 주 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섬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사 , 우리로 그 말씀을 받아살게 하옵소서 .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